

# 2004년도 제10회 전국초등학생대상 금연글짓기 대회

## ■ 심사평

**초등** 학교 금연글짓기 공모가 이번으로 10회 째를 맞았다. 그 동안 여기서 뽑힌 작품들을 통해 나온 금연에 대한 어린이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학교와 가정·사회에 잔잔한 영향을 꾸준히 미쳐 온 것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

이번에도 생활이 담긴 진실한 글, 금연이라는 주제에 충실한 글, 그리고 바른 문장과 구성 등 글씨기의 기본이 갖추어진 글을 입상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저학년부 대상에 뽑힌 '할아버지의 웃음'은 건강을 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웃음이 주는 금연 당부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고학년부 대상작인 '환풍기 소동'에서는 아버지의 금연 과정을 바라보는 어린이의 눈길에서 아름다운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 수상자 명단

### <<<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 3학년 남유경(수원 칠보) △ 5학년 김예빈(상도)

### <<< 금상

△ 2학년 황상우(익산 공동) △ 3학년 송두일(대전 버드내) △ 4학년 이소연(안양 관양) △ 5학년 장효진(부산 사직) △ 6학년 임혜진(신사)

### <<< 은상

△ 2학년 : 조재국(하남), 박소윤(대구 두류)  
△ 3학년 : 김윤경(장위), 이은비(성남 성수)  
△ 4학년 : 서지희(중대부속), 박민정(화성 매송)  
△ 5학년 : 이현재(중대부속), 정진양(인천 일신)  
△ 6학년 : 김용(고양 내유), 김휘(군산 대야)

### <<< 동상

△ 2학년 : 김온(돈암), 반아현(동구로), 김나희(미동), 임다솔(초당), 서정훈(대구 매호)  
△ 3학년 : 김예람(초당), 박정은(대구 매호), 이용국(광주 두암), 김은비(용인 마성), 신호원(용인 산양)  
△ 4학년 : 김나리(계성), 문세영(대구 매호), 강예진(성남 수진), 이승연(영주 서부), 최효선(익산 왕궁)  
△ 5학년 : 정다정(세검정), 정다은(대구 매호), 이충희(대전 중촌), 라연재(진주 신안), 조희연(창원 도계)  
△ 6학년 : 임수련(과천), 우창훈(대구 고산), 신혜원(대구 월촌), 이윤정(인천 인수), 김은정(경산 성암)

### <<< 가작

△ 2학년 : 이석우(미동), 이주연(인천 작동), 박주형(인천 청학), 임재영(인천 청학), 전윤진(대전 성남), 윤병철(대전 중촌), 정윤재(성남 북정), 최가영(남원 도통), 전대원(목포 북교), 이수진(춘천 봄내)  
△ 3학년 : 이선재(개웅), 정휘소(금호), 신가은(성산), 박소영(초당), 오예진(초당), 표세진(부산 주원), 배상민(대전 버드내), 김민철(성남 북정), 김성민(안양 부안), 이예진(아산 용화)  
△ 4학년 : 최정우(성산), 안민정(중원), 곽민희(대구 북부), 박소연(인천 효성남), 정민섭(성남 북정), 백지연(안산 관산), 김현수(파주 신산), 공영서(남원 금지동), 이정희(익산 공동), 유정서(익산 이리영동)  
△ 5학년 : 임혜송(가동), 서지영(금양), 김가연(부산 창진), 이나경(대구 계성), 주대환(대전 내동), 김정민(대전 목동), 이지혜(인천 용정), 제갈영빈(인천 함박), 하지은(광주 서일), 박현진(밀양 밀주)  
△ 6학년 : 박소희(가원), 이상협(당중), 노지은(인천 구월), 박지연(인천 마장), 이준경(인천 용마), 최현경(인천 천마), 이계술(인천 청량), 지용배(부천 원미), 조은별(익산 용산), 이현정(진주 도동)

※ 장려상과 입상은 2004년 5월 15일자 소년한국일보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 저학년부 대상



할아버지의 웃음 <<< 수원 칠보초등학교 3학년 3반 남유정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시다.” 몇 년 전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께서 급히 짐을 꾸려 마산으로 내려가셨다.

“엄마, 학교는?” 내가 놀라 기차 안에서 여쭙보자 엄마께서는

“당분간 결석하는 수밖에.” 하시며 입을 꼭 다무셨다. 심장이 쿵쿵쿵딱 뛰었다.

마산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다. 병실 문 앞에는 「중환자실」이라고 크게 써 붙여져 있고, 나와 내 동생은 나이가 어려 못 들어가게 되었다. 엄마께서는 혼자 초록색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 병실로 들어가셨다.

나는 너무 걱정스러워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았다. 병실 안에 쪽 줄지어 있던 침대를 둘러보는 순간, 할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다. 할아버지의 아픈 하얀 얼굴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우는 것을 보신 할아버지께서는 손을 휘휘 내저으시며

“울지마, 울지마”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한 달 간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다.

어느 날 이였다. 그날은 웬일인지 나와 동생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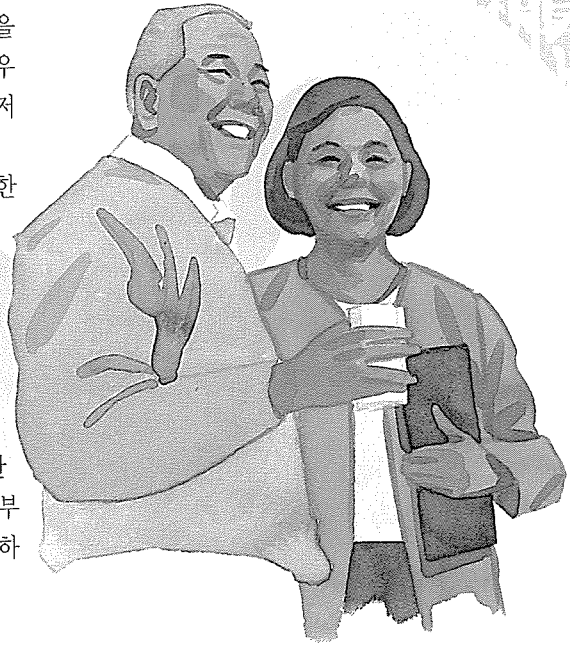
“할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소리치며 뛰어 들어가자 할아버지께서도 살짝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셨다. 그리고, 아빠와 외삼촌을 부르시더니 손짓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셨다. 옆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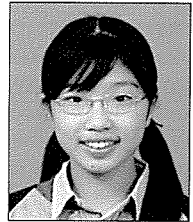
“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으시자 할아버지께서 손가락으로 담배 피우는 시늉을 하셨다.

“담배는 안 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딱 거절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한번 웃으시곤 세상을 떠나셨다. 내 가슴엔 항상 할아버지의 마지막 웃음이 남아 슬프다. 할아버지께서 담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아빠와 외삼촌을 걱정하셨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상한 게 있다. 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담배를 찾으셨을까? 담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아셨을 텐데 끊을 수가 없으셨나? 담배란 건 한번 피우면 멈출 수가 없나보다. 나는 ‘담배의 늪’을 보았기 때문에 아예 담배를 피지 않을 것이다. 72



[ 고학년부 대상 ]



환풍기 소동<<< 서울 상도초등학교 5학년 5반 김예빈

“어 보, 밤에 또 담배 피우고 환풍기 틀어놓고 잤어요?” 아침부터 집 안을 울리는 엄마의 소프라노 소리에 우리는 잠을 깬다. 소리의 크기나 억양으로 보아 엄청 흥분하신 엄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침부터 엄마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지?’ 나는 동생과 눈짓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빠께서 오뎅이처럼 벌떡 일어나셨다. 줄음 가득한 아빠 얼굴에는 당황함과 무안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빠씨!” 아빠의 중얼거림은 계속되는 엄마의 큰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집은 금연구역인데 화장실만은 예외다. 아빠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연기는 금방 빠지지만 냄새는 오래 남아 우리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아침이면 아빠보다 먼저 화장실을 가려고 선잠을 깨거나 동생과 다투곤 했다.

동생은 담배의 나쁜 점을 소개한 책을 아빠 턱 밑에 들이밀고, 나는 담배냄새 때문에 투정을 부리고,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셨다. 그래도 20년 가까이 피워 온 담배를 아빠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다.

우리가 서서히 지쳐갈 때쯤 아빠는 미안했는지 화장실 창문에 환풍기를 다셨다. 그러나 아빠의 행복은 얼마가지 못했다. 아빠께서 환풍기 스위치를 끄지 않아 밤새도록 환풍기가 도는 일이 자주 생긴 것이다. 잘 참던 엄마가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자기 혼자만 끊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

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엄마의 잔소리는 아침 내내 아빠 뒤를 따라 다녔다.

그날 저녁 아빠는 과감히 환풍기를 떼었고, 우리는 담배 냄새 없는 화장실을 되찾아 기분이 좋았지만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빠가 안쓰러웠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이 쓸쓸하게 보였다.

그런데 환풍기 사건 이후 아빠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빠의 담배 피우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일어나자마자 찾던 담배를 이젠 출근하실 때까지 한 개비도 안 피우신다. 담배가 떨어지면 한밤중에도 사러 가시던 모습도 볼 수 없다. 검던 얼굴은 조금 환해진 듯 하고, 많이 걸어도 힘이 덜 든다고 좋아하신다. 이젠 담배 없이도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속도 편해지셨다.

요즘 나와 동생은 아빠를 담배 생각에서 해방시키려고 저녁마다 교란 작전을 진행 중이다.

“아빠, 퍼즐 맞추기 대회 하실래요?”

“아빠, 야구 중계 시작해요.”

우리의 관심이 많아지자 아빠는 무척 즐거우신가 보다. 회사를 옮긴지 얼마 안돼서 힘든 아빠를 위해 완전금연은 조금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 시작만으로 아빠는 반은 성공한 셈이니까.

아빠, 담배가 생각날 때는 환풍기 때문에 엄마에게 구박받던 그 때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금연에 도전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